

'빚쟁이 실소유주 의혹' 강종현, 구속 기로... 횡령 등 혐의

횡령·배임·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 영장심사 檢, 횡령·주가조작 의혹 수사 중 신병확보 시도

검찰이 가상화폐거래소 빚쟁이의 관계사 경영진의 횡령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빚쟁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사업가 강종현(41)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

분께 강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지난달 25일 강씨와 빚쟁이 관계자 2명 등 총 3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상 사기

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최근 배우 박민영씨와 열애설이 났던 강씨는 빚쟁이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강씨가 여동생 강지연씨와 공모해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주가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해왔다. 강씨는 또한 공시 의무를 피하기 위해 전환사채(CB)를 차명으로 거래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빚쟁이실소유주 최대 주주는 자본 34.22%를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비텐트로, 이

비텐트의 최대 주주는 키오스크 유통업체인 인바이오젠, 인바이오젠의 최대 주주는 콘텐츠 유통업체 비킷스튜디오다.

이중 인바이오젠과 비킷스튜디오는 동생 강지연씨가 대표이사로서 있다.

빚쟁이실소유주 최대 주주는 자본 34.22%를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비텐트로, 이

검찰은 지난해 10월 비텐트, 인바이오젠, 비킷스튜디오를 압수수색하고 강종현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지난달 9일과 25일 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두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강씨가 공황장애, 코로나19 확진 등을 호소해 소환조사가 미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지연씨는 지난달 초 소환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최이슬기자



멈춰라 노동단합 1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앞에서 열린 '멈춰라 노동단합! 개정하라 노조법 2,3조' 윤석열 정권 규탄 민중노총 결의대회에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훈남' '주방 이모' 성차별 구인광고 여전

고용부, 주요 취업포털 모집·채용 성차별 모니터링 결과



거나 직종의 명칭에 특정 성만을 지목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방(남), 홀(여)'처럼 직종·직무별로 남녀를 분리해 모집하거나 '라벨 부착 및 포장 업무(남 11만원, 여 9만7000원)'처럼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달리 제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사업장에서 근로자 모집·채용 시 특정 성(性)을 우대하거나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는 등 '성차별적' 구인 광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한 달간 주요 취업 포털에 올라온 1만4000건의 구인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성차별적 모집·채용이 의심되는 광고는 924건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성차별적 광고는 주로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를 모집하는 업체가 78.4%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이 중 811건에서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위반 업체 중에는 2020년 서면 경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성차별적 구인 광고를 한 업체도 있었다. 고용부는 해당 업체를 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몸무게,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요구해서도 안 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인 광고상 모집 기간이 이미 지난 577개소는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면 경고 조치했다. 모집 기간이 지나지 않은 233개소는 법 위반 사항을 정정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남자 사원 모집', '여자 모집' 등과 같이 특정 성에만 모집·채용 기회를 주거나 '여성 우대', '남성 우대'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을 우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고용부는 서면 경고 또는 시정 조치를 받은 사업주가 재차 적발되는 경우에는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키 172cm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 '주방 이모'라는 표현을 쓰면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키나 몸무게 등 신체적 조건을 요구

고용부는 성차별적 모집·채용 문제 해결을 위해 그간 1년에 1회 실시해온 모니터링을 올해부터는 2회로 늘릴 계획이다. 또 광고 모니터링 대상도 1만4000개에서 2만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구직자가 성차별적 모집·채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고용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www.moel.go.kr)'로 신고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해 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

김재환기자

신안 압해대교서 극단적 선택 기도한 50대 무사히 구조

신안군 압해대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기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1일 목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4분께 신안군 압해대교(신안 방면) 상판에 A(53)씨가 바다를 향해 서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설득해 6

분 만인 오전 10시 30분께 주변 파출소로 데려왔다. A씨는 연고 없이 지역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오다 최근 지인에게 '삶이 괴롭다'고 하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인에게 자신의 위치를 휴대 전화로 촬영해 보내는 등 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안정을 도운 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심리 상담 전담 직원의 설득으로 A씨를 빨리 구조할 수 있었다"며 "A씨가 정신적으로 괴로워하지 않도록 후속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안=이덕주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